

# 장애여성 성범죄 노출 심각

## 성매매 알선·매수자 3명 또 입건...사회적 보호 시스템 절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이 성매매 대상으로 이용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위의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지적장애 여성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리 시스템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서부경찰은 14일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손모(27·지적장애 3급)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손씨로부터 소개 받은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이모(35·자영업)씨와 조모(23·회사원)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1월 19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이씨를 A(여·22·지적장애 2급)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6만8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자신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손씨는 A씨와 함께 가출해 모텔과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A씨가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생활해오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손씨를 만

나 수차례 함께 가출을 하는 등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채팅에 빠져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의 무관심과 어려운 환경이 결국 A씨를 성매매의 나라로 떨어뜨린 것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받은 이모(23)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B(여·21·지적장애 3급)씨와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주선해 1회당 12~20만원씩 총 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화대 115만원 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향 선주배 사이인 이들은 B씨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광주의 한 고시원에 끌고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지적장애 여성들이 성매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은 어려운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방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보통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하루 종일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는 물론, 주위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



**텃 빈 시장 닭 판매장**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는 27일까지 전국 재래시장의 닭, 오리, 판매종단조치를 내린 가운데 광주 서구 양동시장 내 판매장에 있는 닭장이 텃 빈이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단

## 경찰관에 욕설·폭력... 잇단 사범처리

경찰이 최근 공무집행방해사범 전담수사팀을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사범처리됐다.

광주서부경찰은 14일 지구대 경찰관의 목살을 잡아 흔든 정모(49·광주시 서구 내방동)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께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장모(45)경사에 욕설을 하고 목살을 잡아 흔든 뒤 원탁까지 뛰달음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5건 등 전과 38범인 정씨는 이날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지구대에 온 뒤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장 경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발길질을 한 김모(27·영암군 영암읍)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새벽 3시30분께 서부경찰서 한 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조모(28)순경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잇따르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산하 5개 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사범 수사 전담반'을 만들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행동이 지나치거나 관련 전과가 많은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경찰관들의 인권과 사기를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에서는 총 254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36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33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니원침 (8221)



**정연주 前 KBS사장**  
**서울고법 해임 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은 부장판사)는 14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이 애초에 해임되지 않았고 하더라도 2009년 11월이 임기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돼도 복직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협뉴스

**화물차· 시내버스 충돌**  
**1명 숨지고 11명 부상**

14일 오후 4시10분께 여주시 돌산읍 평사리 한 도로에서 정모(51)씨가 몰던 1t 화물차와 맞은편에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정씨가 숨지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유모(41)씨와 승객 등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조업구역 위반 어선 조사**

여수해양경찰은 14일 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부산선적 1355급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선장 배모(40), 최모(45)씨 등 2명을 불장아 조사 중이다.

해경은 앞서 지난 12일 오후에도 여수시 남면 간여마을 동쪽 12마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에 침범해 조업을 하던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을 적발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흙친 소핑백에 필요 없는 물품만**

○"자신에게 벌 쓸모도 없는 물건을 '슬쩍'한 50대 남성이 CC-TV에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걸렸다.

○"1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모(51)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35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모 아파트 1층 입구 앞에서 송모(46)씨가 두고 간 안경 렌즈 2쌍, 수건 6장, 운동복 2벌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소핑백을 몰래 가져갔다.

○"경찰조사 결과 이 아파트에 사는 이씨는 집을 나서던 중 우연히 송씨가 자신의 자켓가에 올려 놓은 소핑백을 발견한 뒤 무엇이 들어있는 줄도 모른 채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아무 필요도 없는 물건이 들어있어서 다시 가져다 놓을지 고민했다"고 진술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임호경 前 화순군수 재판 받는다

##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소제기 결정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전직 군수에 대한 재징청형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방극성)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불기소 처분된 임호경 전 화순군수에 대한 재징청형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징청청이만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

에 신청하는 것으로, 재징청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임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22일 화순군 화순읍 모 아파트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남쪽당 인·허가와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상대 후보였던 전완준 현 군수에게 불리한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임 전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은 전 군수 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필리핀 억류 어린이 110명 이달중 귀국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난 한국 어린이 110여명이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 당하고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 당국의 중재로 억류된 어린이 110여명이 이달 중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4일 "필리핀 정부가 조만간 어린이들에게 여권을 돌려주고 1월 말까지 언제라도 귀

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학업허가증(SSP, Special Study Permit)을 받지 않고 어학연수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 운영자 이모씨 등 14명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예정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연협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4분 해질 17시 43분 달돋이 13시 17분 달질 03시 05분

**가장 추운 주말** 구름 많고 서해안 지역 폭설 예상

광주	구름많고 눈	-5/-2℃
목포	구름많고 눈	-4/-1℃
여수	구름많고 눈	-3/-1℃
나주	구름많고 눈	-6/-1℃
완도	구름많고 안개	-2/-1℃
구례	구름많고 눈	-4/-1℃
에남	구름많고 눈	-2/-1℃
장흥	구름많고 눈	-2/-1℃
순천	구름많고 눈	-3/0℃
영광	구름많고 눈	-6/-3℃
진도	구름많고 눈	-2/-1℃
전주	구름많고 가끔눈	-6/-3℃
군산	흐리고 눈	-5/-4℃
남원	구름많고 가끔눈	-7/-3℃
옥산도	구름많고 눈	-1/-1℃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8/-3	-7/0	-6/2	-6/3	-6/2	-7/2

# 광주예총 회장 선거 최규철 회장 재선출

제8대 광주예총 회장 선거에서 최규철(전남대 미술학과 교수·사진) 현 회장이 다시 선출됐다.

14일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주예총 정기총회 대의원 투표에서 최 회장은 67표를 얻어, 27표에 그친 정철(동신대 방송연예학과 교수) 후보를 제치고 재선출됐다.

한편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월8일부터 4년간이며, 이번 투표에는 음악협회 등 예총 산하 10개 협회 대의원 8명씩 80명과 예총 임원 14명 등 총 94명이 참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김영인 前전남대총장 별세

호남 의학사의 산증인인 김영인 전 전남대학교 총장이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

광양 출신인 김 전 총장은 광주의 학전문학교 1회 수석 졸업생이자, 호남지역 최초 의학박사다. 전남대의 과대학장, 대학원장을 지냈고 제12대 전남대 총장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효순씨와 아들 종근(전남대 교수·의과대학 부학장)·경근(대신증권 부장)·보근(인천간석 모아치과원장)씨, 딸 해근(서울강남고 소아과원장)·현근씨가 있다.

빈소는 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보향소이며 오는 17일 전남대학교장으로 치러진다. 장지는 광주 영락공원.062-220-6981~2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줄기세포 이식 부작용 책임 못 물어”

## 광주지법 판결...손해배상 소송 한자 패소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은 여성과 줄기세포 공급업체인 알앤엘바이오 간의 법적 다툼에서 업체 측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알앤엘바이오 등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줄기세포 이식술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4일 박모(여·52)씨가 '줄기세포를 이식한 뒤 암이 발병했다'며 알앤엘바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을 환자 가 자각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심지어 암세포를 신체에 주입해 암 조직을 확인하는 데도 수주 이상이 걸린다"며 "시술 1주일 만에

암이 발병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은 줄기세포 이식술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줄기세포 이식술의 안전성에 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4월 알앤엘바이오 측에 1500만원을 주고 자신의 복부에 줄기세포를 채취했으며, "미용에 좋다"는 회사 측의 권유를 받고 4개월 뒤 중국 연경의 한 병원에서 줄기세포를 이식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1주일 만에 왼쪽 목에 혹이 발생해 같은 해 9월 25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아 회사 등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씨는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부터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알앤엘바이오와 이 회사 치료제를 구입해 환자들에게 시술한 5개 의료기관을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줄기세포 = 자기재생능력(self-renewal)과 분화능력(differentiation)을 갖춘 세포. 신체의 피부나 간, 신장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손상된 간이나 피부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치료제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 강평길 前 여수해경서장 검찰 뇌물수수 혐의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조업금지구역에서의 조업 편의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광주일보 1월 12일자 6면)로 강평길(58) 전 여수해양경찰서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서장은 여수연안에서의 불법 조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경남의 대형 선사 등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강 전 서장이 지난해 승진을 대가로 경찰관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박동주 전남도의원 당선 무효형

## 광주지법 목포지원 징역 1년 실행 선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과 과일상자 등을 살포한 광역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4일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박동주(49·함평1)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전 서장이 지난해 승진을 대가로 경찰관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65)씨 등 유권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많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점, 범행 후에도 상대방에게 진술변복을 종용한 점,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2~3월 6·2 선거를 앞두고 함평군 일대에서 유권자들에게 집을 방문해 현금과 과일상자 등 모두 1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